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역사



기획연재가 먼 길을 돌아서 브라질에 당도했다. 군사독재, 국가권력의 노조통제 그리고 이에 맞선 민주화 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참으로 우리와 많이 닮은 그들의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아직도 진행중인 브라질 노동당(PT)의 역정과 성과들을 돌아보기로 한다.

신원철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1. 머리글

이 글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 이하 PT로 씀)의 결성과정과 활동에 대한 간단한 개관이다. 군사정권하 노동기본권의 박

탈과 급속한 경제성장, 정치적 자유화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의 고양 등, 브라질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운동의 주도로 노동자당을 만들고, 1989년과 199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당 후

보인 몰라투니가 43%와 27%를 얻어서 2위를 기록할 정도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이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만하다. 이 글의 독자들은 브라질 노동자당의 건설 및 성장과정에서 민주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운동을 모색하고자 할 때 등장하게 될 문제점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단, 브라질 노동자당의 경험을 2차세계대전 후 신흥공업국에서 노동운동이 대중적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낸 새로운 모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순서는 먼저 브라질의 민주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197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성장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PT의 탄생과 성장의 동력을 이해하는 배경을 이룬다. 이어서 PT의 결성 및 발전 과정을 노동조합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PT의 이념, 조직, 당의 사회적 기반 등에 관한 논의를 다룬 후, PT가 1982년 이후 선거에서 거둔 성과를 평가해볼 것이다. 끝으로 PT의 경험을 참고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양국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한다.

2. 민주화와 노동조합운동의 성장

1964년 군부 쿠데타 이후 브라질은 1968년부터 1974년까지 '경제 기적'으로

블리우는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한다. 이 시기에 연 평균 11.2%의 속도로 GNP가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진행되었다. 브라질의 소득 불평등은 악명높은 것으로서 1970년대 이후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5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노동조합운동의 성장과 브라질 PT의 결성은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 근대적 부문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총고용인 중에서 급속성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4년에는 34%, 275만명이 되었다. 대규모 공장도 증가하여 1978년에 이르면 폭스바겐사 38,000명, 포드사 25,000명 등 ABCD지역¹⁾에 만 21만명의 급속노동자가 결집되었다(이성형, 1989).

1974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브라질 경제는 침체에 빠지게 되고, 브라질 군부 정권은 정치로부터 조직적으로 퇴각하는 이른바 정치개방(abertura)을 시도한다. 1974년 의회선거에서 군사정권하의 관제 야당인 MDB가 총 1천 4백만표를 얻어서 여당 ARENA의 1천만표를 크게 앞섰던 것을 계기로 MDB는 군부정권에 대한 저항의 중심이 되었다. 1979년에 정권을 이어받은 파계이루드 정권하에서 야당을 분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당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정당체제가 재편된다. 군부쿠데타 이전에 해외로 망명하였던 인사들이 귀국하여 PTB(브라질 노동당), PDT(민주노동당) 등이 창당되고, 과거 억당이었던

ARENA는 PDS(민주사회당)으로 제1야당이었던 MDB는 PMDB(브라질민주노동당)으로 개편되었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이 창당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1982년에 실시된 총선거는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군부 정권의 의도와 달리,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 전개되었고, PMDB가 44%를 획득하여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PMDB를 중심으로 직선제 개헌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었고, 노동자당(PT)도 적극적으로 이에 참가하였으나, 결국 의회에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하여 실패한다. PMDB는 이후 군부와 타협하여 간선제를 통한 집권을 시도하고 결국 PMDB의 테메스가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취임을 앞두고 병으로 사망하여 사르네이후주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PT는 대통령 간선선거를 보이 못했다. 당시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PMDB의 거둔 실정(失政)이 드러나자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처럼 PT 출범 초기의 정치지형은 독자적 계급정당의 제도화에 유리한 것은 아니었으며, 1982년 총선거에서의 좌절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PT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 나왔다.

1978년 ABCD지역의 금속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파업은 국가-자본-외자 3각동맹에 의한 종속적 경제성장 모델과 이를 뒷받침한 국가조합주의적 노동통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1978년 ABCD지역의 금속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파업은 국가-자본-외자 3각동맹에 의한 종속적 경제성장 모델과 이를 뒷받침한 국가조합주의적 노동통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196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기존의 진보적인 노조지도자를 축출하고 활동가를 구속하였다. 1969년까지 1,987개의 노조 중에서 999개 노조의 간부가 강제로 축출되었고, 노동조합이 담당하였던 사회보장기능이 축소되었다. 또 임금에 관한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을 폐지되고 국가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공식지수에 따라 1년에 한번씩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국가가 생계비수치를 조작한 것이 폭로됨으로써 새로운 투쟁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DIEESE(사회경제 및 통계연구소) 연구에서 1973년에 정부가 생계비수치를 조작했음을 발견했다. 일단의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이 DIEESE의 발견을 확인해주었고, 그 리포트의 요약한 내용이 1977년 7월 31일 <폴라 드 상파울로> 지에 발표되었다. 상페르나르두 금속노동자들은 수치가 조작되지 않았을 경우, 금속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더 올랐어야 하는지를 물었고, DIEESE는 34.1%라고 응답하였다(Keck, 1992: 63-64). 이에 상페르나르

두 금속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의 금속노동자들과 함께 임금회복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국가와 노동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8년 상베르나르두 금속노동조합은 국가가 정해준 인상율을 받아들이는 데 불과한 임금교섭을 거부하였다. 1978년 5월 12일, 상베르나르두 공단의 스웨덴계 다국적기업 사브스카니아 공장에서 1,600여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은 20%의 임금인상과 정부나 노동법원의 개입 없이 직접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다음날 포드사의 노동자가 합류했고, 이어서 ABCD지역의 90개 금속기계업체 노동자들이 가세하였다. 78년말까지 상파울루주의 18개 도시에서 400여개 기업 55만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였다. 1979년에는 파업이 브라질 전체로 확산되어 교

원, 은행원, 기자, 건설노동자, 농업노동자, 운전기사, 광부, 공무원, 의사, 청소부도 파업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기업주와 정부측은 물리적 탄압(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집회 금지 등), 대량해고(은행원, 기자, 교사 등)와 파업기간중 급여공제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했고, 파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다. 1980년에는 다시 ABCD 지역의 금속노동자 20만명이 파업을 감행하였으나, 풀라는 구속되고 51일만에 노동자들은 직업장으로 복귀하고 만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 경제적 요구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요구(파업권, 고용안정,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대표성 보장)로 나아가서는 군사 정권 자체에 대한 반대로 발전해갔다(이성형, 1989 : 전병유, 1989).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3. 노동자당 건설과 노동조합운동

1979년 1월, 린스에서 열린 상파울루주 금속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당에 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대회에서 브라질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새로운 정당을 결성할 것을 촉구하는 '린스결의'가 채택되었다. 이후 비공식인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기본 헌장을 작성해서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스, 리오데자네이로 등 대도시지역의 노동절 집회에서 20만부를 배포하였다. 1979년



PT의 1994년
다동경선거 로고

6월 칼다스 급속노동자 대회에서 다시 한번 린스결의와 유사한 결의가 채택되었고, 이후 논의의 속도가 빨라졌고, 분위기가 확대되었다. 1979년 6월, 상베르나르두에서 노동조합 간부, 지식인, 그리고 MDB 정치인들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6월 28일 벨로 호리존테에서 툴라는 강령초안이 다음 주에 노동자들에게 토론용으로 배포되고, 노동자들의 소망 여하에 따라서 당이 건설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979년 8월 18일, MDB 좌파출신의 정치인들이 노동자당에 대해서 대규모 토론회를 상파울로에서 개최하였다. MDB 정치인, 노동조합간부, 학생, 지식인, 다양한 운동단체의 대표자 등 약 4백여명이 참여하였다. 이 집회에서 툴라는 독자적인 노동자당을 강력히 지지하였고, 그 당의 문호는 MDB의 진보적 정치인들에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툴라는 “노동자당의 건설을 지지하는 노동조합간부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현재의 노동조합 구조하에서 노동자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Keck, 1992 : 69)5)

약 9개월의 준비를 거쳐서 1980년 2월 PT가 결성되었다. 당이 합법화되기 위해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예비 정당 대회에서 당의 최초의 전국상임위원의 40%는 노동조합지도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통과되었다. 그 집회에서 선출된 12명의 중앙집행위원 중에는 8명이 노동조합 지도자였고, 예비집행위원 5명 중 2인이 노동조합 지도자였다.

서는 각 지구당별로 일정 수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했다. 이로 인해서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당원을 형식적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조직의 자금기부를 불법화하고 노동조합과 정당 간의 공식적 관계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영국노동당이나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같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제정을 조

달하는 방식은 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노동자당은 1982년 2월 11일, 공식적으로 예비당록을 마칠 수 있었다.

상파울로에서 당을 조직하는 것은 대체로 기존의 인간관계망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노동조합활동가들은 거주지에서의 조직활동을 전개하도록 권장되었다. 창당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자신이 직접 공장문에서 PT에 관한 논의를 이끌므로써 노동조합의 역할과 당의 역할을 뒤섞기를 원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공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동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ABCD 지역에는 이미 인간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을 조직하기가 쉬웠다. 1980년 중반까지 상베르나르두 급속노동조합 출신인 Devarir Ribeiro와 Djalma Born이 상파울로주 수

준에서 당을 조직하는 일을 떠맡았다. 그리고 중앙당을 건설하는 일은 우선 자쿠 비타르와 올리비우 두트라가 맡았다. 둘라는 1980년 금속노동자들의 단체교섭과 파업으로 체포되어 있었다. 창당 과정에서 지도부내에서 노동지도자들의 비중은 매우 높았다. 1980년 1월에 선출된 전국 임시위원회에는 1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노동조합 지도자이거나 과거에 노동조합활동 경험이 있었다. 1980년 6월에 새로운 임시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10명 가운데 6명이 노동조합 지도자이거나 활동가였다. 1981년 8월 8-9일에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예비 전당대회에서 당의 최초의 전국상임위원의 40%는 노동조합지도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통과되었다. 그 집회에서 선출된 12명의 중앙집행위원 중에는 8명이 노동조합 지도자였고, 예비집행위원 5명 중 2인이 노동조합 지도자였다. (Keck, 1992)6)47-61

이상에서 보았듯이 브라질 노동자당은 1978-9년의 노동운동의 교양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1982년 선거에서 PT가 패배하자, 많은 활동가들이 다시 노동조합활동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그들은 1983년 8월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CUT를 결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자쿠 비타르는 당의 서기장이었는데, CUT의 간부로 출마하기 위해서 당 집행위원직을 사직했다. PT의장인 룰라와 부의장인 올리비우 두트라가 1984년 중반에 각각 자신의 노동조합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조

합선거에 출마하므로써 그들이 당 활동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1983년-1985년 시기에는 노동조합운동을 정당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주요한 행동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1985년 선거를 계기로 PT가 강화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정당으로서 PT가 강화되고, 또 자주적 역량으로서 노동운동이 동시에 강화되자, 양자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PMDB나 PTB 등 다른 정당 성원에 의해서 주도되는 노동조합이 CUT에 가입했고, 조직의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또, PT와 CUT가 보다 제도화됨에 따라서 PT가 CUT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노동조합운동이 PT의 창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모든 노동조합 운동세력이 노동자당의 창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으며, 또 좌익 운동집단 내에도 노동자당의 창당에 반대한 세력이 적지 않았다.

1978년말 어용노동 간부들을 제외한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은 크게 세가지의 경향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째는 노동조합 반대파(union oppositions)로서 이들은 공장위원회 조직을 선호하고 공식적 노동조합 조직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주창하는 평조합원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966-68년, 1977-79년의 기간에는 중요하였으나, 공식적 조직 내에서 노동조합 지도부의 활동성이 증가하면

서 그 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⁸² 두번째의 경향은 노동운동내의 지도적 시위, 특히 연맹 및 총연맹 수준에서의 지도부를 획득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주와 전국 수준에서의 요구와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합노조(Unidade Sindical) 결성을 추진하였다. 브라질 공산당과 가까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노동자당(PT)의 장당에 반대하였고,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야당인 PMDB(민주운동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연합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또 총파업은 자칫 군부를 자극하여 민주화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들은 또 노동조합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ILQ와 제87조, 즉 조합다원주의를 거부하였다. 세번째 경향은 노동조합 조직내에서 활동하면서 공장 수준의 조직과 기층노동자들의 참여를 지지하였고, 국가와 기업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강조하였다. 아우텐티쿠스(Autenticos, 이하 순수파로 씀)로 불리우는 이 경향은 물라와 상베르나르두와 디아테마의 급속노조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들은 기존 연맹과 총연맹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공장수준의 조직과 참여를 지지했다. 1980년에 순수파와 통합노조파 사이에 상베르나르두 급속노동자들의 파업을

전부적 블록이 주로 평조합원 조직의 대표권 인정, 하부의 주도권과 공식적 노동체계 내의 산업별 연맹과 산업별 총연맹의 역할 축소, 정부에 대한 직접행동으로서의 총파업 등을 주장한 반면, 개혁 블록은 주로 정책영역에서 기능하는 전국조직의 창출을 주장했고, 총파업전술에 반대했다.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파업은 정부의 새로운 임금정책에 도전하며 제기한 경제적 요구를 전혀 얻어내지 못하였고, 또 노동조합의 광범위한 지지도 받지 못했다. 통합노조파는 이를 모험주의적인 것이며,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정치적 자유화에 의해 서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허용되어 온 공간을 소멸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

(Keck, 1992 : 172-173).

1981년 8월 21-23일 상파울로의 파리아 그란데에서 제1차 전국노동계급회의(CONCLAT)가 개최되었고, 1,126개의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에서 5,247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통합노조파로 이루어진 '개혁블록'(Bloco da Reforma)과 조합반대와 및 순수파로 이루어진 '전부적 블록'(Bloco da Combate)이 대립되었다. 전부적 블록이 주로 평조합원 조직의 대표권 인정, 하부의 주도권과 공식적 노동체계 내의 산업별 연맹과 산업별 총연맹의 역할 축소, 정부에 대한 직접행동으로서의 총파업 등을 주장한 반면, 개혁 블록은 주로 정책영역에서 기능하는 전국조직의 창출을 주장했고, 총파업전술에 반대했다. 이러한 대립은 82년 11월의 선거와 관련하여 노동자표를 둘러싼 IPT와 PMDB(민주운동당)간의 경쟁으로 더욱 격화되었다(조효래, 1995 : 130-



작업중인 브라질 공산노동자들(사진/Berlino Salgado).

140).

제2차 노동계급회의를 준비하는 임무를 맡은 통일노동자연맹준비위(Pro-CUT)는 1983년 6월 분열하고, 전부적 블록은 1983년 8월 상페르나르두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CUT를 결성한다. 여기에는 665개의 노동조합과 247개의 다른 노동단체에서 5,509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개혁블릭은 상파울루의 파리아 그란데에서 11월에 CONCLAT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1,258개 노동조합과 연맹, 총연맹 등으로부터 4,254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로써 브라질의 노동조합운동은 분열되었다.^{푸주 8)} 그러나 이후 2년동안 CONCLAT에 비해서 CUT는 직접적 대결 전략을 통해서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성

과를 가져다 주는데 성공하였고, 특히 1985년 말 9월의 은행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CUT는 노동조합운동내에서 지배적인 조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1986년초에 CONCLAT의 지도부는 합법화를 계기로 명칭을 CGT(노동자총연맹)로 개칭하였다. 이후 1988년 브라질의 공산당 세력들이 CGT를 탈퇴하여 CUT로 가입하고, 다시 CGT내 최대 세력이었던 상파울루 금속노조의 메데이로스가 PS(노동조합의 힘)라는 새로운 연맹으로 분리되어 나감으로써 CGT는 더욱 약해졌다 (Keck, 1992; 조효래, 1995).

노동자당의 역할은 노동운동의 자주적 활동을 고무하고 강화하는 것이었고, 그

선진대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PT의 관계는 PT나 공산당과 달리 노동조합이 정당활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운동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은 정당이었고, 정당은 정치 무대에서 노동조합에서 확인된 목표를 대변했다. 노동자당이 제도권에서 입지를 확보해감에 따라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간다. 비록 조직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었지만, 각각은 다른 한 쪽이 기존의 수단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브라질에서는 노동조합이 시장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했던 시기에는 노동자당이 형성되어 노동자들 사이의 아이덴티티와 연대를 강화시켜 주었던 것이다(Keck, 1992: 186-193).

4. PT의 이념과 조직

PT는 출범 이래 맑스-레닌주의나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를 주장해왔다. PT는 봉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거부하며, 기존 정치체도를 활용함으로써 브라질 자본주의를 변혁시키고자 한다. PT는 브라질 자본주의를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로 변혁시키기 위한 완성된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당은 가장 급

PT는 출범 이래 맑스-레닌주의나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를 주장해왔다. 당은 가장 급진적 민주주의적 형태로 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를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적 민주주의적 형태로 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를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라는 1989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외채에 대한 이자지불 중지, 국영 부문의 민주화(민영화에는 반대), 주택, 교육, 보건 등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지출 증대, 1천2백만명의 땅없는 농민을 위한 농업개혁, 군부 권력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내세웠다. 1994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소득재분배가 강조되었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노동조합운동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운동 부문을 결합시키면서 출발하였고, 특히 가톨릭교회의 기초공동체(CEBs)와 기타 교회 조직들은 PT의 중요한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또 PT 내에는 인종차별반대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동성애자 운동 등 다양한 흐름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PT를 '열린' 정당, 나아가서는 포스트 모던한 정당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PT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전통적인 대중 운동과 환경, 문화, 그리고 성(sexuality)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관심을 둔 운동을 모두 결합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Branford, Sue & Bernardo Kucinski, 1995). 한편, PT내에는 트로츠키주의자 그룹,

마오주의자그룹 등 다양한 좌익활동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⁹⁹ 이들은 장당 초기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동자당이 합법화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는 데 기여하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독자적 조직과 이념을 갖고 PT를 이용하려는 경향도 있어서 이른바 '이중 활동'(dual militancy)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¹⁰⁰

이와같은 당내의 다양한 흐름을 통합하고 있는 것은 PT내 최대의 정파인 알미콜라쌍(이하 통합그룹으로 씀)의 지도력이다. 알미콜라쌍이라는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노동자와 당, 당내의 여러 정파들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이들은 노조활동과 노동자의 이익대변, 경제문제 등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이필두, 1994). 이들은 1982년 선거 이후, 1983년 중반 113인 그룹으로 시작되었다. 통합그룹은 물라를 포함한 노동조합운동가들과 교회 활동가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현재 PT의 활동가들(petistas)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에 관한 특정한 개념정의나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특수한 처방이 아니라, 바로 독특한 기풍(ethos)이다. 1994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전국 순례 행진 중에 벌어진 다음의 일화는 PT의 기풍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어느날 아침, 브라질의 남부를 행진하던 물라는 한 마을의 광장에 있었다. 그는

군중에게 마이크를 건네기로 하고, 오른손 손가락이 잘려나간 한 사내를 지목했다. 물라 자신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잘리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고, 물리는 그 사내도 아마 일하다가 크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했다. "손가락이 왜 잘렸지요?" "전 병아리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혔어요", 사내가 대답했다. 사람들 속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러자 물라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우리는 날마다 신문과 TV에서 징부예산을 도둑질한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억을 도둑질하고도 정직한 사람인 체 하고 있습니다. 병아리 도둑의 정직성에 축복있기를!" (Branforde & Kucinski, 1995 : 67-68에서 인용)¹⁰¹

위의 일화는 기존 정치인의 부도덕성과 위선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를 PT가 대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PT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브라질 기존정당의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와 구별되는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과 실천, 그리고 기존 체제와 부패에 대한 도덕적 분노라고 생각된다. PT의 지지자들이 볼 때 PT는 정치에서의 도덕성을 대표한다. 물론, PT의 반대자들이 볼 때는 이로부터 도덕적 우월성을 자부하는 거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느낄 수도 있다(Branford & Kucinski, 1995).¹⁰²

PT는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두가지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하나는 '예비회의' (pre-convention) 방식이다. 당은 2단계의 회의구조를 가지며, 공식적인 당대회는 지역별, 전국단위의 예비회의에서의 결된 사항을 재가한다. 이러한 예비회의에는 '공식적' 당원이 아니라도 모든 PT의 구성원들이 소속별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두번째는 기초소조(nucleos)라고 하는 조직이다. 기초소조는 전통적 좌파정당의 세포보다

는 카톨릭 기초공동체의 조직형태와 유사성을 지닌다. PT의 규약에 의하면 기초소조는 지구당 산하의 지역별 조직 형식을 취한다. 대도시의 경우, 사회운동부문별, 소속 직장, 혹은 직업별로 나누어졌으며, 모든 당원은 반드시 한 기초소조에 소속되어야 했다.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기초소조의 활동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상당부분이 오직 서류상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후주 13)} 그럼에도 PT가 브라질의 기존 정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당원의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5. 선거와 PT의 성장 ^{후주 14)}

브라질의 선거는 총선거, 시선거, 대통령선거로 구분되며 총선거는 상원, 하원, 주지사, 주의원 선출을 위해 4년 마다 실시되고 상원은 임기가 8년으로 4년마다

PT가 전국에서 얻은 유효투표는 3.1%에 불과했으며, 하원의원 8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의 선거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하에서 전개되어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에 호소한 PMDB의 전략이 들어맞았고, 또 PT의 당조직이 아직 미약했고, 선거운동에 많은 미숙함을 보였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

1/3, 2/3 비율로 교대로 선출된다. 시선거는 시장, 시의원을 역시 4년마다 선출하며 인구 백만이 넘는 대도시는 다시 구 단위로 시의원선출만 세분화된다. 82년선거는 시장임명제가 없었기에 따라 총선거 시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PT의 초기 활동은 당의 합법화와 1982년의 선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82년 선거는 지방자치체의 부활에 따른 최초의 주지사, 주의회의원, 시장, 시의원 선거와 함께 연방상원의원 69명, 연방하원의원 479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1982년의 선거결과는 PT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선거 결과는 PT의 최저 목표인 9개주에서 3%이상의 득표, 전국적으로 5%이상 득표를 확보한다는 것에 훨씬 못미쳤다. PT가 전국에서 얻은 유효투표는 3.1%에 불과했으며, 하원의원 8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의 선거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하에서 전개되어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에 호소한 PMDB의 전략이 들어맞았고, 또 PT의 당조직이 아직 미약했고, 선거운동에 많은 미숙함을 보였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 물론 상파울루주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약 10%의 표를 얻어 4위에 그쳤다.

PT의 지도자들은 1984년에 대통령 직

선제 요구투쟁을 전개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1982년 선거 이후 1985년 선거까지 노동조합전국조직인 CUT의 결성에 몰두하였고, 플라, 두드라, 비따르 등 PT 창당 멤버이자 지도자들은 각각 급속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온랭노조연맹위원장, 식유화학노조연합위원장으로 복귀하였다.

1983년말 이후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운동에 몰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PT는 계급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이외에 민주주의를 위한 비타협적인 투사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직선제개헌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

에 대해서 PT가 보이콧 입장을 취하자, 야당은 PT가 갖고 있는 8표를 행사하지 않아서 근무독재가 연장될 경우 PT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비난을 가했다. PT 소속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당에서 제명되었다.

1985년에는 각 주 수도의 시장 선거와 간선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주 수도의 시장 선거에서 PT는 1개 주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주의 수도에서 후보를 내었다.

그 결과 브라질에서 5번째로 큰 포르탈레자 주에서 폰타넬리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3개 주에서는 2위를 하였으며, 상파울루 시장선거에서도 20% 이상의 득표를 하였다. 이러한 PT의 진출은 한편으로는 85년의 주수도시장선거가 1982년의

총선거에 비해서 당력을 집중시키기가 용이했던 측면도 작용했고, 또 PT의 선거전술이 변화되어 중간층의 거부감을 덜어준 것도 요인이었다. 변호사, 건축가, 교수 등 중간층 출신의 후보들이 PT 후보로 많이 입후보하였다.

1986년 선거는 사르네이 민간정부 하에서 치른 최초의 총선거였다.



총과 85년 대선에서 43%라는 득표를 기록했다.

선거는 PMDB와 PFL의 집권연합의 압승이었다. 두 당은 상원 72명중 60명, 하원 487명에서 374명을 당선시켰고, 주지사 23명을 전원 당선시켰다. PT는 총투표의 6.5%를 얻어서 18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몰라는 상파울루에서 65만 6천여표를 얻었는데 이는 브라질 하원의원 가운데 최다 득표였다.

민간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크루자두 계획의 실패로 1988년의 인플레이율

은 1,000%에 달했다. 1987년 7월 리우의 버스요금의 50% 인상되자, 격렬한 가두 시위와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은 1988년 선거에서 표출되었다. 이제는 PMDB는 집권여당이었고, 선거구도는 더 이상 빈주 대 반빈주가 아니라, 진보 대 보수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1988년의 시장선거에서 PT는 주로 대도시에서 36명의 시장을 당선시켰고, 또 1천명이 넘는 시의원을 당선시켰다. 특히 상파울루시장에 PT 후보인 루이자 에룬디나가 당선된 것은 이변이었다. 전체적으로 브라질의 100여 대도시만을 놓고 보면 PT는 28.8%의 지지를 획득하였고, 이는 2위인 PMDB의 18.4%를 훨씬 앞서는 것이었다.

1989년 대통령선거에서 콜라리는 1차투표에서 16.1%를 얻어서 2차 결선투표에 진출하였고, 결선투표에서는 1차투표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한 PDT의 브라질라와 PSDB의 코바스의 지지를 얻었으나 43%를 얻는데 그쳐 아감페 PRN의 꼴로르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꼴로르가 인기중에 비러사건으로 탄핵을 받고 물러난 이후, 부통령 이파마르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의원과 장관 등 고위 공직자 30여명이 관련된 부정스캔들이 발생하여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PT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1994년의 대통령

비록 PT가 두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실패하였지만, 창당한지 15년도 되지 않아서 브라질 정치 구조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PT는 현재 51명의 하원의원과 5명의 상원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콜라의 당선이 유력시되었으나, PSDB, PTB, PFL 등 중도에서 보수에 이르는 연합전선을 구축한 까르도주 후보에게 다시 패배하였다.

이상의 선거결과는 비록 PT가 두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실패하였지만, 창당한지 15년도 되지 않아서 브라질 정치 구조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PT는 현재 51명의 하원의원과 5명의 상원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연방직할시인 수도 브라질리아와 이스피리토 산토스주를 통치하고 있는 브라질 최대의 야당으로 성장하였다.

6. 맺음말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발전과정과 브라질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은 산업화 수준, 군사독재의 경험이라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민주화이행 시기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역량, 정당진입장벽의 정도, 이데올로기 지형 등 다양한 차이를 또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브라질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계급 정당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이다. 이 차이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하겠다.

먼저, 민주화 이행과정 초기에서 노동운

농 역량이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경우 1978-80년의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조합운동 역량이 축적되었고, 이는 곧바로 PT와 CUT의 결성으로 표출되고, 이에 의거하여 1983년의 대통령 직선제 운동 등 민주화 과정에 기여하면서도 1987년의 재헌의회 논쟁과 1982년 이후의 인련의 선거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총의 결성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고, 산발적인 진보정당 건설 시도 역시 모두 좌절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민주화 이행기의 정치구도가 노동운동과 거의 무관하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96년말 국회에서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된 태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중요한 계기를 의미한다.

둘째, 정당진입장벽의 차이이다. 브라질의 경우,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소수와 정당 의회 진출이 용이했던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제가 결여된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파 정당의 원내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 브라질의 경우, 사르네이 만간 정부 등장 이후, 사회·경제적 쟁점이 주요한 갈등의 축으로 부상하였고, PT는 분배의 문제를 실질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내용으로 제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갈등과 대립이 여전히 정치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대립으로 인해서 정치 무대에서

계급간 갈등의 표출이 왜곡되고 있다.

셋째, 세계사적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 현실로 인해서 여전히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경우 공산당이 합법화되었지만, 이들 전통적 좌익은 소수파로 몰락하였고, 새로운 좌익인 PT가 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분단 현실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좌익 이데올로기도 급기시하는 풍토가 강하고, 이는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 운동에도 커다란 장벽으로 남아 있다. ❖

후주

- 1) 브라질에서는 상베르나르두 급속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1978년 1980년의 총파업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한 인물이다. 브라질 노동자당의 창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1989년과 1994년에는 노동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 2) 상파울루 지역의 산업지대를 말한다. 내 가락 주요 도시인 산투 인드레아, 상베르나르두 캄푸, 삼카에타스 두 실, 디아 테라레스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 3) 그와 겹쳐 취임 몇 주 전까지 군부정권하의 여당이었던 PSD의 의장이었다.
- 4) DIEESE는 1950년대에 발족하여 1980년대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임금, 생계비 등을 산출하는 것을 주된 작업으로 하면서 파업, 단체교섭, 단체협약 등을 조사 분석하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특징 분야의 산업연구도 수행한다. DIEESE는 다양한 경향을 가진 노조에서 파견된 인원이고 구성원이 약 300 명이다.(전병유, 1989: 28)
- 5) 이 모임에서 나온 논의는 노동생명을 건설하려는 사람들과 민중운동 협정파, 혹은 MDB의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7명의 의원과 7명의 노동조합장도, 그리고 8명의 지식인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모임과 토론의 틀을 세고 강령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당시 논쟁에 참여하였던 저명한 사회학자 카르도주는 이때 MDB에 남았다가 이후 PSD를 결성하였고, 1994년에는 노동자당의 총리에 맞서서 중도·보수연합의 대동맹우부로 출마하여 당선된다.
- 6) 브라질의 노동조합과 정당 사이의 관계는 영구적인 국민국이다. 즉, 양자 노동당의 초기 역사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을 건설하고 불복 투표제를 통해서 정당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던 것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경우처럼 대당성 권리가 1906년 만하임 대회에서 채택되어 노동조합과 당 의지에 개혁을 미치는 모든 결정을 수속하였던 것과 달리

- 다. 브라질의 PT로서는 노동조합과 공식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노동법 521조에 의해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적으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했다(Keck, 1992 : 167).
- 7) 노동조합 반대파의 입장에 대한 소개로는 이성복(1994) 참조.
- 8) 그 지세한 과정과 분열의 상층에 대해서는 조유문(1993) 참조.
- 9) 1980년대초에 좌익 조직 가운데 가장 큰 PCB, PC do B, MP 8 등은 PMDB내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보다 작은 분파들은 PT를 선호하였다.
- 10) PT는 1986년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내 정파에 대한 잠정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서, 1987년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내 정파(tendencies)의 기능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다. 그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PT는 민주적, 사회주의적 대중 정당이다. 따라서 PT는 여러 정치조직들의 전선이 아니며, 어떠한 정당에 의해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계도성의 대중 전선(institutional mass front)도 아니다.
 2. 민주정당으로서 PT는 다수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을 옹호하고 실행하며, 동시에 소수의 존재와 그들이 당내 모든 곳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3. 전당대회는 분파의 권리를 승인하며, 다음 전국성당위원회의 이에 관한 규정을 다룰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많은 이러한 권리가 PT의 강령을 채택하지 않거나 PT의 민주주의와 균형을

-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에게는 허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분파의 권리는 PT 이외의 정당에서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eck, 1992 pp. 116-7참조할 것.
- 11) 당시 브라질에는 국회의원들이 여신심의 과정에서 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이 드러났고 이 비리 스캔들을 풍자한 다음과 같은 농담이 퍼져 있었다. 국회의원의 후원 금액은 연봉 8만달러로 입자리에서 5천 1백만원쯤 어릴게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두손을 마주잡고 아무 말 못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님도 도와서 복권이 2만 4천번 당첨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Powers, 1995 : 208)
- 12) 1994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콜라의 헌법 애호가 비리 스캔들에 휘말렸고, 노동자당이 이로부터 타격을 입기도 했다.
- 13) 창당 초기 기조소조는 1982년에 선거위원회로 흡수되어 다시 구성되지 않았다. (104)...당이 합법화로 가는 과정에서 소조의 합성과정은 당원출원 과정과 모조를 같이 하지 못했다. 당원 중 5%만이 소조에 가입되었고, 또 많은 소조와 상임위원회가 분서상으로만 존재하고 당대회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Keck, 1992 : 104-105).
- 14) 선거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종현(1992), 이광두(1993)를 참조할 것.

참고 문헌

- Branford, Sue & Bernardo Kucinski(1995), Brazil - Carnival of the Oppressed : Lula and the Brazilian Worker's Party, Russell Press.
- Keck, Margaret, E.(1992), The Worker's Party and Democratization in Brazil, Yale University Press.
- Powers, John(1995), "Fighting for the Soul of Brazil", Lanahan, Kevin & Michael Shellenberger(eds.), Fighting for the Soul of Brazil, Monthly Review Press.
- Sader, Emir & Ken Silverstein(1991), Without fear of being happy : Lula, the workers party and Brazil, Verso.(국역본, 『브라질노동자당의 불행,』 국로노동연구소의, 금강, 1994)
- 신종현(1992), 「민주화와 소조, 정당, 선거 : 브라질의 노동자당(PT)의 경향」, 『아메리카에리카연구』.
- 이성복(1994), 『브라질 신노동운동 연구 :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성형(1989), 『최근 브라질 노동운동의 전개』, 경남대학교, 『한국과 국제정치』.
- 이광두(1993), 『브라질의 민주화과정과 PT(PT)』,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 진병유(1989), 『현단계 브라질의 정치경제와 노동운동』, 『동행과 전망』5권.
- 조동문(1993), 『브라질 노동운동의 역사적 변천 : 신노동조합운동의 등장과 노동운동의 이중구조 형성』, 『동향과 전망』1993년 가을호.
- 조호래(1994), 『민주화와 노동정치 : 한국, 브라질, 스페인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